



# 이젠 '믿을맨'

ML 피츠버그 강정호

## 8게임 연속 안타...3할 타율에 수비·주루 완벽

한국 프로야구를 거쳐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1호 야수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결승타를 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강정호는 27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파크에서 계속된 마이애미 말린스와 내셔널리그 홈 경기에 5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장, 4타석 3타수 2안타 1타점 1사구를 기록했다.

이날 피츠버그는 3루수 조시 해리스에게 우익수를 맡기고 닐 워커(2루), 강정호(3루), 조디 머서(유격수)로 내야진을 꾸려 내야수의 공존을 실행했다. 클린업에 배치된 강정호는 첫 타석부터 타점을 챙겼다.

1회말 2사 1, 3루에서 그는 마이애미 선발투수 호세 우레나의 조구 직구를 받아쳐 중견수 방면으로 흐르는 1타점 적시타를 날려 팀의 선취점을 냈다.

3회말 1사 두 번째 타석에선 단타성 타구를 2루

타로 만드는 공격적 베이스러닝을 선보였다.

우레나의 슬라이더를 외야 좌중간으로 잡아당긴 강정호는 타격 직후부터 전력으로 질주해 1루를 돌아 2루로 내달렸다. 그리 깊지 않은 타구를 뒤늦게 잡은 마이애미 중견수가 2루로 공을 던졌지만 송구는 정확하지 않았고 강정호는 2루에 안착했다.

5회말 1사 2루에서 유격수 망블로 물러난 강정호는 8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마이애미 4번째 투수 카터 캡스가 던진 시속 99마일(159km)짜리 강속구에 왼쪽 팔꿈치 보호대를 맞았다.

최근 4경기에서 1안타씩만 쳤던 강정호는 이날 멀티히트로 시즌 타율을 0.304에서 0.316(95타수 30안타)로 끌어올렸다. 타점은 12개다.

피츠버그는 1회말 강정호의 타점으로 만든 리드에 2회말 워커의 투런 홈런 등을 묶어 5-1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KIA 한승혁



## 한화전 불넷·삼진 넘나드는 날뛰기 투구 김감독 "너는 중요선수" 격려 후 위력투

'미완의 대기' KIA 한승혁을 깨운 감독의 발걸음이었다.

KIA는 지난 26일 한화와의 원정 경기에서 김주찬의 스리런 등을 앞세워 10-3 대승을 거뒀다. 여유롭게 풀어가던 경기였지만 마지막 9회 수비 때 느긋하던 벤치가 분주해졌다.

컨디션 점검차 6일 만에 마운드에 올랐던 한승혁의 투구가 말을 듣지 않은 것이다. 불로 송주호와의 대결을 시작한 한승혁은 파울에 이어 볼 3개를 연달아 던지며 주자를 내보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 특유의 강속구와 포크볼 모두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연속 스트라이크 불넷으로 무사 만루가 됐다.

10-2로 여유가 있었지만 다음 경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 되자 벤치가 움직였다. 흔들리는 한승혁을 위해 이대진 투수코치가 아닌 김기태 감독이 직접 마운드로 올라갔다.

감독이 다녀간 뒤 황선일을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한 한승혁은 풀 카운트 승부 끝에 최진행을 불넷으로 내보내며 1실점을 했지만, 이성열과 허도원을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자신이 만든 위기에서 스스로 탈출했다. 4개의 불넷과 3개의 삼진, 두 개의 파울 타구, 투수와 포수 단 두 사람만이 32개의 공을 주고받으면서 끝이 난 기록적인 이닝이었다.

한승혁을 깨운 한마디는 무엇이였을까? 김기태 감독은 "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선수인데 이렇게 던질 거냐. 점수 차이 많이 나는데 꼭 바로 안 던지냐"는 말로 올 시즌은 물론 내년 시즌에도 마운드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할 한승혁에게 '책임감'을 던져줬다. 막내 투수를 위해 직접 마운드까지 걸음을 하면서 중요한 선수라는 '자부심'까지 동시에 심어준 셈이다.

한승혁은 "말이 안 넘어가서 힘 빼고 던지려고 했는데 가운데로 안 들어가서 당황을 했다. 감독님께서 올라오시고 나서 정신이 확 들고 오기가 생겼다. 자신있게 막 세게 던지려고 했다. 사람들이 기록이라고 하더라. 포수하고 캐치볼을 하고 나온 셈이다. 불명예일 수도 있는데 스스로 이닝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선배들한테도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속스럽게 웃었다.

감독을 마운드로 소환한 막내 투수. 민망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교차한 순간이었다. 한승혁은 "내 연차에 감독님을 마운드에 올라오게 했다. 감독님에게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상황에서 교체될 수도 있는데 기회를 주셨다. 좋은 경기는 하지 못했지만 기대를 하시고, 믿음을 주셨다는 것에 기분이 좋다. 경기 내용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고 싶지 않다. 오래 쉬고 나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핑계에 불과하다. 이게 내 실력이다. 더 안정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연구부상으로 선발 후보에서 불넷으로 자리를 옮겨 시즌을 출발한 한승혁은 김기태 감독이 내년 시즌 마무리 후보로 염두에 두고 있는 KIA 마운드의 희망이다. 미래를 위한 김기태 감독의 발걸음, 한승혁이 위기 속에서 한 뼘 더 성장했다. /김어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에 최첨단 스포츠과학센터 들어선다

시체육회 30억원대 사업 선정...초·중·고 선수들 과학적 훈련 정부, 29종 스포츠과학 측정 기자재·매년 2억원 운영비 지원

광주시체육회가 30억원대 국가 공모 사업인 '지역 스포츠과학센터' 유치에 성공했다.

광주시체육회(상임부회장 유재신)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 4월 공모한 지역 스포츠과학센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스포츠과학센터는 그동안 국가대표에 관한 제한적으로 제공하던 스포츠 과학 지원 서비스를 지역에 있는 초·중·고 및 일반 선수들에게 확대해 과학적 훈련 체계를 세워 경기력 향상을 꾀하는 사업이다.

광주시체육회는 센터를 올해 3월 개관한 광주시체육회관 내 전용면적 540㎡를 확보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센터에 개소에 필요한 등속성 근관절 측정시스템 등 29종의 스포츠과학 측정 기자재와 연간 2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광주시체육회는 박사급 책임연구원과 트레이너, 측정요원,보조요원 등 6명의 운영 전문인력을 선발·배치할 계획이다.

센터에서는 근력 등 8개 영역의 기초체력과 전신 근기능 등 4개 영역의 정밀체력을 측정, 개인별 체력수준을 진단해 맞춤형 운동처방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여기에 훈련 성과를 반영해 개인의 운동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린다. 또 종목별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우수 선수들의 훈련지체와 운동기술에 대해 처방하고, 경기력 완성을 위한 심리·정신력 강



유재신 상임부회장

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도자·선수 등을 대상으로 운동생리학·운동역학·운동심리학 등 스포츠과학에 대한 교육과 스포츠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유재신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스포츠과학센터 유치가 장병완·박주선·박해자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이 큰 힘이 됐다"며 "센터 유치 성공으로 1차년도 10억원, 2차년도 이후 매년 2억원씩 약 3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선수들에게 과학적 체력관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광주체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일곡·수문초, 비아·월곡중 광주 육상대회 원년 우승

초·중 60개교 1028명 참가

광주 체육 꿈나무들의 발걸음·육성을 위해 올해 창설한 '제1회 광주시체육회장배 육상경기대회'가 광주지역 초·중 60개교(초등 29곳, 중학 31곳) 1028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초대 대회 우승은 일곡초와 수문초가 나눠 가졌다. 일곡초는 남초부 우승·여초부 준우승을, 수문초는 여초부 우승·남초부 준우승을 차지했다. 송정초는 남녀 모두 3위에 올랐다.

중학부는 비아중과 월곡중이 각각 남녀 정상에 올랐다. 준우승은 영천중과 화정중, 3위는 상일중과 문산중이 차지했다.

특히, 남초부 80m에서 박성민(진제초 4)은 11초82를, 100m에서 김정재(금당초 6)가 12초77로 골인, 전국소년체전 우승 기록(10초87, 12초11)에 근접하는 실력을 과시했다. 또 여초부 트랙경기와 남중



부 필드경기에서도 두각을 보여 광주 체육 신인 발굴에 정사진을 밝혔다. 올해 창설된 이 대회는 선수 등록이 되지 않은 일반학생들이 스포츠의 기초인 100m·멀리뛰기 등 육상 67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다. 특히, 대회를 통해 학생 개인별 능력을 테스트해 다른 종목 지도자들로 하여금 운동에 소질이 있는 학생

들을 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안재오 광주시체육회 경기팀장은 "첫 대회가 사교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며 "광주체육의 뿌리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과 협력해 매년 지속적으 대회를 개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